

###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 “무도한 검찰독재에 맞서 나라 바로 세울 것”

#### ‘전북자치도·도당 실무자 간 당정 간담회 개최’ 등 내걸어 “탄소 경제서 농생명 경제로 가는 길목서 전북 몫 찾겠다”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이 24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당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병도 전임 도당 위원장이 전북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에 4년 연속으로 전북 출신 의원들이 들어가서 민주당의 룰이 깨질 정도로 활발하게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조 원 예산전북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김제 부안군산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번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지지해 주신 만큼 국회 재선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독재에 맞서 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까하고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주변의 국회의원들과 소통의 과정을 거쳤는데 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3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맨 먼저 전북도당이 도민의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정당 시스템과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 번째로는 전북자치도와 도당 실무자 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북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도당운영을 하고 정책 세미나와 간담회를 자주 열어 전북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군산 앞바다의 해상풍력으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를 잘 활용해 RE100에 대처, 기업을 유치하고 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만금 산단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전북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북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과 공공기관 이전문제, 시·군과 도와의 연계 발전전략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정책방향의 해결책을 마련해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는 이원택 의원 외에도 윤준병 의원과 신영대 의원의 거론되고 있어 추근들과 연락해 보았으나 의원들이 아직 출마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이 8월 3일인 관계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

이번에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

북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1968년 김제출생으로 익산 남성과와 전북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전주시의원(2006-2008)과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 22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농어민의 권익 옹호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송하진 전주시장과 전북지사 재임 시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을 거쳐 정무부지사를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비서실 행정관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과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도 결코 후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통해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도민들은 이 의원의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와 관련 전북이 인구 소멸시대에 새만금이 개발돼 인구도 늘어나고, 정치권에서부터 전북이 제 몫과 제 역할을 하는데 힘쓰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훌륭한 위원장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김제시의회, 6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안건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6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3건, 기타 안건 1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가 제안한 제28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과 오승경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7월 1~2일 제280회 임시회 기간동안 향후 원월회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김제시의회 제9대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은 전통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설인 김제시의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각종 실과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진행했으며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이와 같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김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는 24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의 회기일정을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2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원들의 제·개정 조례는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현 의원),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양정민·박철원 의원) 등 총 8건이다.

최중오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제9대 익산시의회는 218일간의 회기 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4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비회기 중에도 현장방문과 재난·재해 예방활동 등 힘 있는 행보를 지속해왔다”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신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24일 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9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무주군의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세심함을 더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무주군의회는 특히 결산검사 결과를 결과로만 남기지 않고 익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결산과 예산을 연동하고 불용과 이월되는 예산을 근절하기를 재차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회기를 마감했다.

이해양 의장은 “2022년 7월 출범 후 무주군의회와 무주군, 양 수레바퀴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였고 2년 동안 농어촌공부 무주지소 설치 등 다양한 성과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함께 해결하며 군민 중심의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하반기 의장단과 함께 더욱 힘차고 밝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KIST 원장과 전북 기술경쟁력 협업 논의. 24일 원주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3월 취임한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과 만나 약속을 나누는 뒤, 전북의 기술경쟁력을 위한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지속가능 돌봄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전북자치도의회 환복위·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돌봄역량 증진·주민주도 돌봄기반 조성 등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사)전북희망나눔재단(대표 김영기)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철 위원장과 김영기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과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 내 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더 나은 돌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1 주제발표에 나선 서양열 원장은 돌봄의 더 나은 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돌봄역량 증진, △주민주도의 돌봄기반 조성,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서비스의 지속적 발굴,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제2 주제발표에 나선 양병준 사무국

장은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돌봄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 주도의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복지 정책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이 지속가능한 돌봄과 사각지대 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인 신청주요의와 선택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대표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주중 회장은 우리 사회의 돌봄의 문제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의 돌봄, 사회복지사에 의한 돌봄, 사회복지사를 위한 돌봄의 관점에서 우리의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아동돌봄의 대표로 지정토론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14개 시·군연합회 채현주 회장은 현재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논의, 아동돌봄의 모든 관계자들을 고려한 일관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정책과 관련해 평화의집 김종열 원장은 돌봄이 또 다른 돌봄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함을 강조하며,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고, 노인 영양 관련 분야 대표로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영양사회 배정숙 제1부회장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이제는 노인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노년기 영양관리를 통한 돌봄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병철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생,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산업화 등으로 돌봄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견제·감시로 도정 활성화”

#### 이수진 전북자치도의회, 제2부위원장 출마 공식화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도의회 후반기 2부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요 공약은 “전북발전은 국가적 리더를 키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에 기여하겠다”며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로 도정을 활성화하고, 의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는

도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2대 전반기 부의장에 도전한 이수진 의원은 제1부위원장 투표에서 5표, 제2부위원장 투표에서 6표를 얻었다.

40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힘이 1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수진 의원이 얻은 표는 적지 않다.

/이만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도의회 후반기 2부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전북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이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도청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기관 등 관련 종사자, 도민 200여명이 참여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인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이틀간 ‘기후위기’와 ‘인권담론의 재구성’이라는 전체회의 주제로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6개 분야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과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사회의 인권 문제를 상생력과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포럼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들을 각 분야에서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인권친화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와 함께 도내 인권익제고와 인권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인권옹호자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7월 첫째 주부터 ‘전북인권공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